

정보화 사회의 月桂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얘기다. 비록 한두번의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를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교훈이 성공의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을 실패가 두려워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警句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서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자는 역설적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런데 시각을 다루며 급변하는 요즘 세대에서는 웬지 이말이 어색하게만 들린다. 말 자체가 지닌 순수한 뜻이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겠지만 격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 경영자의 한두번 실수는 곧바로 낙오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세대의 흐름을 인식해서인지 많은 기업들이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의 예가 기업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래 관계의 효율화, 즉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電子의 서류 교환)도입이다.

컴퓨터간 통신방식에 의한 서류교환 시스템인 EDI는 기업간의 정보흐름에 있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오류발생 가능성이나 정보전달의 지연문제를 해소해준다. EDI는 또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해 주고, 비용을 크게 절감해 주며, 고객의 요구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적으로 EDI서비스는 미국업체



成 善 重

포스데이타(주) 사장

가 가장 앞서있다. 68년 운송업계를 시초로 하여 자동차 제조업, 운수업, 식품업, 창고업 등 20여개 분야의 업계가 EDI를 활용하고 있고 연평균 데이터 송수신량도 1백80%선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EDI를 주도하고 있다. 87년 포항제철의 철강 VAN도입이 국내 EDI 서비스의 시초가 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EDI도입과 이용이 크게 미미하지만 자동차 VAN, 유통 VAN, 제과 VAN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크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무역의 EDI화를 위하여 KT-NET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EDI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EDI가 보다 활성화되어 경영의 중추적인 전략도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표준제정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 주도아래 국제표준에 기초한 국가표준을 우선 정립해야 하며, 국가 표준의 바탕아래 각 업계의 거래양식 특성을 살린 업계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 욕구의 다변화, 기업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기업경영은 점차 복잡화되고 있다. 결국 누가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판명될 것이다.

EDI가 기업의 경쟁력을 보증하는 필수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업에 정보화사회의 월계관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요소임엔 틀림없다.